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646. 832. 7397

212. 736. 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eoulsb@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 Jordan, OFM

지도신부 : 이웅희 루카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luke0829ofm@gmail.com

전교수녀 : 안 마리루시 (투스평포교베네딕도회서울수녀원) seoulsb@gmail.com

사목회장 : 장철순 스테파노 646. 322. 2139 stfrancis.cj@gmail.com

제1독서 | 사도 2,1-11

화답송 | 시편 104(103), 1ㄱ과 24ㄱ, 29ㄴ-30, 31과 34(◎30 참조)



(후렴) 주님, 당신숨을 보내시어 온누리의얼굴을 새롭게하소서.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옵니다.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 온 세상은 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온 누리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 ◎

제2독서 | 1코린 12,3ㄷ-7.12-13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알렐루야.

복음 | 요한 20,19-23

영성체송 |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위업을 선포하였네. 알렐루야.

성가	입당	146	예물준비	249(258)
	영성체	160(159)	파견	150

〈부속가〉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빛 그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주님, 오소서 마음의빛. 가장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손님 저희생기 돌주소서. 일할때에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때에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빛 저희마음 깊은곳을 가득하게 채주소서. 주님도움 없으시면 저희삶의 그모든것 해로운것 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땅 물주시고 병든것을 고치소서. 굳은마음 풀어주고 차디찬맘 데우시고 빛나간길 바로소서. 성령님을 굳게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칠은 베푸소서. 덕행공로 쌓게하고 구원의문 활짝열어 영원복락 주옵소서.



신앙고백: 사도신경

† 전능하신 천주 성부

◎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밀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인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체 분배	복사
5월 24일	정유진	국민준	민재인	민재인	김종선 이영혜	한서희 이예진
5월 31일	장혜윤	정은철	이경자	이경자	이정현 백이백	최예준 김수현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대성전
청년 미사	매달 둘째 토요일 오후 4:00 소성전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면담 후 결정 *신청: Sr. 마리루시
유아 세례	면담 후 결정 *신청: Sr. 마리루시
봉성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 Sr. 마리루시
예비신자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 Sr. 마리루시
견진 교리	방문교리(환자/어르신)*신청: Sr. 마리루시

*** 오늘 2차 헌금 있습니다.**

주일 미사 후 친교 모임

산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 분, 새로 전입오신 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재속프란치스코회 뉴욕 한국순교자형제회

(Monthly Meeting: Secular Franciscan Order of New York Korean Martyrs Fraternity)

일시: 매월 첫째 주일 12:00-5:00 PM.

장소: 아랫성당(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대상자: 지원자/ 입회자/ 유기서약자/ 종신서약자

문의: 718-344-9790 정기열 프란치스코

St. Anthony(6/13,토) 빵나눔 봉사자 모집

봉사 시간: 10:00 AM-2:00 PM

(시간대별 봉사가능, 최소 1시간)

대상: 성인(*안전을 위해 미성년자는 제외합니다)

문의/신청(문자): 646-832-7397(Sr. 마리루시)

제30차 2026년 미동북부 성령대회

주제: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루카 17, 21)

일시: 7월 25일(토) 오전 9:00-오후 8:30,

7월 26일(주일) 오후 12:00-오후 6:00

장소: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280 Parker Ave. Maplewood, NJ 07040)

참가비: \$40 (토요일 점심 저녁, 주일 점심 포함)

신청: 917-929-4242(성령기도회장 민재인 데레사)

주최: 미동북부 성령쇄신 봉사회(지도신부: 조민현 요셉)

문의: 회장 이영희 마리아 (kaccrs.ne@gmail.com)

미사 봉헌

연미사 지향

- 조정옥 엘리사벳, 고경덕
- 김예경 안젤라 Helene, Johansson
- 강순기 이레네 평안한 안식을 위해
- 강순기 이레네 영원한 안식을 위해
- 강순기 이레네
- 윤정순 헬레나 평안한 안식을 위하여
- 정영자 마리아 평안한 안식을 위해
- 최광빈 마누엘
- 민우식 요셉
- 김옥지 아가다

생미사 지향

- 박정자 로사의 빠른 쾌유
- 변도순 마리아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 박정자 로사의 빠른 쾌유를
- 민덕미 안젤라 건강하기를
- 이진형 베드로 영육 건강
- 이태목 카를로
- 민유미 카타리나
- 루카 신부님, 수녀님, 맨하탄성당 모든 신자 분들 성령강림절을 위하여
- 양미숙 마리아와 자녀들의 영육 건강을 위하여
- 김택영 알베르토, 김혜숙 마리아

(선종) 故 김옥지 아가다(향년 81세)

“주님, 김옥지 아가다 자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추소서. 김옥지 아가다 자매와 세상을 떠난 모든 이의 영혼이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장례일정 >

- 2026년 5월 25일(월): 저녁 7시 부임 및 연도
- 2026년 5월 26일(화): 오전 9시 부임(연도)후 9시 30분 장례미사

장소: 중앙장의사

(162-14 Sanford Avenue, Flushing, NY 11358)

* 25일(월) 저녁 7시에 연도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26일(화) 오전 9시에 부임에서 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요한 20,19-23)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신앙의 선조들을 찾아서

124위 복자 : 복자 김계완 시몬 (? -1802)



김계완 시몬은 한양의 양인 집안 출신으로 약방을 운영하며 살았다. 1791년 최필공 토마스에게 천주교 서적을 받아 읽고 교리에 감화되어 입교하였고, 최창현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같은 해 신해박해 때 체포되었다가 배교하여 풀려났으나, 곧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신앙생활에 힘썼다. 1794년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입국하자 동료들과 함께 거처를 마련하는

데 애썼다.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된 후 피신 생활을 이어갔으나, 부친이 체포되고 자신도 붙잡혔다. 그는 문초와 형벌 속에서도 "천주께 대한 효가 더 중요하다."며 끝까지 신앙을 지켰고, "형벌을 받아도 믿음을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하였다. 이후 형조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1802년 서소문 밖 또는 새남터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그의 최후 진술은 이러하다. "저는 무식한 백성으로 천주교에 깊이 빠져 여러 해 동안 신봉하였습니다. 지금 비록 형벌을 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진실로 신앙의 가르침을 믿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성화_김형주 作,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6

*출처: <의정부주보>, No. 1183, 가해, 2026. 05. 24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홍순완비오 노혜영리오바 이병국요한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 NY 10001
www.kunjip.nyc

Kim & Bob Shop
김밥, 비빔밥, 떡볶이 & More

배달 및 포장 전문, 케이터링 주문 환영
(929) 797-1212
826 9th Ave, New York, NY 10019
Between 54 & 55th Street
www.kimandbobshop.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EST WINE & LIQUOR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CARGOZONE
LOGISTICS INC

양서윤 플라라 | Flora Yang
marketing@czlusa.com
657-337-5130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 색소·미백·레이저
보톡스 / 필러 / 여드름 흉터

Tel 212-697-1802 Text 917-670-7801
501 5th Ave #1601, NY, NY 10017

HAPPY HOME CARE

이지원 라파엘라 I:1 맞춤 방문 간호
Registered Nurse (347) 927-5635 (투약·검진·돌봄)
happyhomecare.rr@gmail.com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Colleen Insook Lee, M.D.
이인숙 내과

Tel: (212) 714-1170
Fax: (212) 290-9061
drleesmedical.mht@gmail.com (Bet. 32 & 33 St.)
1270 Broadway, #405 New York, NY 10001

다시 만난 신약 성경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안소근 실비아 수녀(성도미니코 선교수녀회)

“신약 성경은 왜 썼을까?”라는 질문으로 연재를 시작했지요. 요한 복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던져 봅니다.

2026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표현이 너무 익숙하고, 예수님은 당연히 삼위일체의 한 위격으로서 하느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먼저 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분이 땅에서 걸어 다니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으니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몇십 년이 지났을 때도, 인간 나자렛 예수님에 대한 기억은 루카 복음 첫머리에 언급된 것과 같은 증인들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따르는 무리에 관심을 갖게 된 이들은 그분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고 그분의 가르침과 행적을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요한 복음이 작성된 때는 이미 바오로 사도의 서간들이 있었고 다른 복음서들도 있었습니다. 그 복음서들에서는 예수님의 행적에 놀라면서 “저분이 누구시기에?”라고 묻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복음은 그 첫 장에서부터, “저분이 누구시기에?”라고 묻지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요한 1,1.14)라고 선포합니다. 소문을 들었던 그분,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다고 하고 많은 무리가 따랐던 그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분이 하느님이시고, 한처음에 이미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이신 바로 그 말씀이 사람이 (원문 그대로는 “육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머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 복음이 작성되던 때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있었던 이단들을 생각하면 이 말들은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나자렛 예수님을 그저 한 인간으로만 여기고 신성을 부인하면서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스도’가 그 위에 내려와서 얼마 동안 머물고 그 ‘그리스도’는 나중에 다시 떠나갔다거나, 아니면 그분이 정말로 인간이 아니었고 하느님이 다만 인간의 겉모습으로 나타났었다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신성을 부인하거나 인성을 부인하는 여러 주장들에 맞서, 요한 복음 1장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을 밝혀 줍니다. 그분이 참으로 하느님이시고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때가 아니라 한처음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참으로 사람이시라는 (그래서 겉모습만이 아니라 정말로 육이 되셨다는)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려고 이 복음서 전체를 쓴 것이기도 하지요.

그리스도론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온갖 신학 논쟁이 떠오르지만, 이것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교 신자인지 아니면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종교를 따르고 있는지 분별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잘못하면 스스로도 모르고 겉으로 티도 나지 않으면서 사실은 잘못된 신앙에 빠져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 복음 1장을 한 구절씩 읽으면서 거기에서 말하는 내용을 모두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출처: <의정부주보>, No.1183, 2026. 05월 24일



* 성령강림대축일: 성령의 은사와 열매

미사 후 성령카드 뽑기가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뽑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 칠은(七恩)> (이사 11,2-3)

- 개인과 공동체의 성화를 위해 성령이 베푸는 7가지 은혜

- ①슬기(지혜): 구원에 필요한 하느님의 뜻을 세상에서 찾고 맛들이게 하는 은혜
- ②통달(깨달음): 하느님의 진리를 잘 알아 듣고 이해하는 은혜
- ③의견: 하느님의 뜻에 따라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아는 은혜
- ④지식: 성경과 교리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은혜
- ⑤굳셈(용기): 신앙생활의 유혹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은혜
- ⑥효경: 하느님을 참 아버지로서 사랑하고 따르는 은혜
- ⑦두려움(경외):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는 은혜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 5,22-23)

- ① 사랑 ② 기쁨 ③ 평화 ④ 인내
- ⑤ 호의 ⑥ 선의 ⑦ 성실 ⑧ 온유
- ⑨ 절제

